

‘표’ 단속 vs 확보... 여야 ‘채상병 특검법’ 전운

野 6당,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시 장외투쟁 예고 28일 재의결 절차서 與 20인 이상 이탈표 필요... 국회 긴장감 고조

21~22대 국회 교체를 2주여 남기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

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황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현·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 180석이다. 즉,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외’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

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024. 5. 18. (토) 13:00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 (4층, 213호)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사업 재검토”

尹 국가재정전략회의...반도체·배터리 산업 석박사 2000명 양성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팔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박사 인재를 2000명 양성에 나선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을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담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구조적 비효율 탓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19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를 2000명 양성하기 위해 약 246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 대학 40곳과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으로 기존 3곳에 더해 7개 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연합뉴스

與 총선 패배 책임론 분분...한동훈 전대 출마 힘받나

백서특위위원장 ‘尹·韓 공동 책임’...논란 가열에 명분 제공 관측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이 ‘총선 백서’ 논쟁과 맞물리며 오히려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쟁을 불을 지폈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서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백서는 6월 중 발간이 목표”라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6월말 7월초’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전대 이전에 백서가 나오는 일정한 셈이다. 친한계는 이런 백서특위의 움직임에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에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면서 총선 백서 논쟁이 한 전 위원장을 당내

이슈의 중심에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출마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당권 경쟁에 (총선 백서 이외에) 다른 이슈가 끼어들 틈이 없지 않나”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다가는 참패 책임만 덩어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대에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남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남권 낙선자가 다수인 이들 원외 위원장의 ‘불만’은 대체로 조 위원장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체 또는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선출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52) 전 수석대변인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허 전 수석대변인이 38.38% 득표로 이기인(35.34%)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뽑혔다고 발표했다.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일 투표(50%)를 합산한 결과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율은 70.04%(4만1004명 중 2만8719명)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인 ‘천아용안’(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됐다. 지난 1월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4·10 총선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숙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